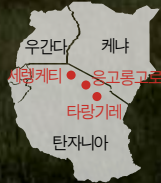


끝없는 아프리카 평원과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Serengeti)는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평원’을 의미한다. 그들의 말처럼 세렝게티에는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작은 면적인 1만5천㎢ 상당의 초원이니 끝이 보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지루함은 있을 수 없다. 건기로 접어들어 누렇게 변한 들판 곳곳에서 코끼리, 얼룩말, 기린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다. 대낮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자 커풀도 보인다. 줄지어 늘어선 차량 행렬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같은 모습은 세렝게티와 맞닿은 응고롱고로(Ngorongoro) 자연보호구역과 타랑기레(Tarangire) 국립공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임의로 경계를 지었을 뿐 동물들에게는 아무 때나 오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인간은 초대받지 않고 찾아간 객(客)일 뿐이다.

글·사진 김수진 아프리카 순회 특파원



3박 4일 사파리, 대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사파리(Safari)는 스와힐리어로 여행, 탐험을 뜻한다. 탄자니아 국립공원 사파리는 그야말로 여행이자 탐험이다. 즐거운 탐험을 위해서는 좋은 팀이 필요하다. 사파리는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 2박 3일에서 3박 4일, 길게는 몇 주 동안 팀원과 동고동락해야 한다.

경력 10년의 탄자니아 사파리 가이드 베니와 요리사 에릭, 8개월째 세계 여행 중인 브라질 여성 마리ানা, 다른 한국인 남성과 한 팀을 이뤘다. 팀마다 가이드와 요리사는 필수다. 가이드는 3박 4일 동안 목직한 4륜 구동차량을 운전하며 동물의 왕국으로 여행자들을 인도하고, 요리사는 매 끼니 맛있는 식사를 책임진다.

다른 여행자와 팀을 이루지 않고 가이드와 요리사만 섭외해 개별 사파리를 즐길 수 있지만 팀을 이루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진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 탄자니아 국립공원 입장료가 18%나 올랐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한다면 팀을 이루는 게 낫다. 성인 외국인 1인당 약 70달러(약 8만원), 차량 한 대당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야 하며, 숙박비·식사 비용이 더해지면 가격이 더 치솟는다. 한국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 있으나 온라인으로 현지 여행을 접촉하거나 아루샤(Arusha) 시내에 즐비한 여행사를 찾아다니며 알아보면 가격을 흥정할 수 있다.

‘바오바브나무와 코끼리의 천국’ 타랑기레 국립공원

탄자니아 사파리의 베이스캠프나 다름없는 아루샤 시내에서 일행과 간단히 장을 보고 드디어 사파리 차에 시동을 걸었다. 약 120km를 달려 첫 번째 목적인 타랑기레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타랑기레 강의 이름을



1 세렝게티 국립공원 입구.
2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에서 얼룩말과 누 떼가 이동하고 있다. 3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식물인 바오바브나무는 수명이 5천~6천 년에 이른다.
4 기린 한 마리가 나뭇잎을 뜯어 먹고 있다.
5 하마 두 마리가 서로에게 입을 벌리고 있다.

만 이 곳은 크기가 2천870㎢ 정도로 인접한 세렝게티나 응고롱고로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지만, 6~10월 건기에는 수많은 동물이 물을 찾아 타랑기레 강으로 몰려든다. 게다가 아루샤에서 차로 1~2시간 정도만 달리면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는 여행자들이 사파리를 즐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다.

누런 풀숲 사이에서 긴 목을 치켜들고 우아하게 걸고 있던 타조가 사파리의 시작을 알렸다. 검은색 깃털은 수컷, 갈색 깃털은 암컷이다. 이어 황토색, 흰색, 검은색 털이 멋지게 어우러진 톰슨가젤과 할아버지 같은 얼굴을 한 누 떼, 초원의 멋쟁이 얼룩말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얼룩말 무리 중에는 장난기가 넘치는 녀석도 보였다. 고개를 마구 흔들며 달리더니 땅에 드러누워서는 등을 비빈다. 몸이 간지러운 모양이다. 일행이 “와”, “정말 멋지다!”, “사진 찍게 잠깐 세워주세요!”를 연발하자 베니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라는 표정을 지었다. 조금 더 달리자 소시지 모양의 열매가 잔뜩 달린 ‘소시지 나무’가 보인다. 이 열매는 기린이 즐겨 먹는다.

일행이 소시지 나무를 보며 킁킁대는 사이 이번에는 거대한

바오바브나무가 나타났다. 건기라 잎이 모두 떨어졌지만 거대한 몸집 덕에 전혀 앙상해 보이지 않았다. 5천~6천 년을 산다는 바오바브나무는 그 세월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둘레가 10m는 족히 돼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식물 바오바브나무는 물이 부족하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물을 아주 조금씩 사용해 광합성을 하면서 천천히 자란다. 반면 뿌리는 물을 찾아 아주 크고 튼튼하게 내린다는 게 가이드의 설명이다. 바오바브나무가 타랑기레 강 일대에 뿌리를 내린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타랑기레에서는 ‘코끼리의 천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고 있는 코끼리 가족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물과 그늘을 좋아하는 코끼리에게 바오바브나무가 있는 타랑기레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모양이다. 녀석들은 넓디넓은 대지를 걸으며 이따금 귀를 팔럭였는데 이는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

코끼리들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우지곤 소리가 날 정도로 나뭇잎을 먹는데 집중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코끼리가 일행이 탄 사파리 차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웅얼하면 서도 카메라 셔터 누르기를 멈출 수 없었다. 불과 1m 안팎

의 거리에서 바라본 코끼리의 눈은 순하기 그지없었다. 회색빛 두꺼운 피부에 잡힌 주름마저 선명했다. 녀석은 ‘너희들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사파리 차를 유유히 지나 길 건너편 초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베니는 “코끼리는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서 “코끼리가 코를 내리고 다가오면 괜찮지만 만약 코를 높이 쳐들고 올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렝게티 한가운데서 별 헤며 잡드는 밤

둘째 날 오후부터 여정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세렝게티 사파리가 시작됐다. 1951년 설립된 세렝게티는 탄자니아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사실 세렝게티는 ‘설립’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대자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사자는 물론 물소, 코끼리, 얼룩말, 들소 등 약 300만 마리의 대형 포유류가 살고 있으며 영양, 톰슨가젤, 독수리 등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본래 이 일대에 마사이족도 살고 있었는데 인간의 영향으로 동물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자, 1959년 탄자니아 정부는 세렝게티에서 응고롱고로 일대를 분리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람과 가족은 응고롱고로 보호구역(Ngorongoro Conservation Area)에서만 살아가도록 했다.



인간이 더 이상 세렝게티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하루 입장료를 낸 관광객들에게는 세렝게티에 머무를 수 있는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파리 가이드들이 일행을 이끌고 오후 늦게 세렝게티로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는 이유다. 우리 일행 역시 세렝게티 한가운데 위치한 심바 캠핑장에서 둘째 날 밤을 보낼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사파리 숙박은 보통 로지(lodge)와 캠핑으로 나뉘는데 가격은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로지는 일반 숙박시설과 다름없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개인 화장실, 폭신한 침대 등이 구비돼 있지만 캠핑을 하게 되면 초원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공동 주방, 샤워실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캠핑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사파리를 하러 온 여행객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다. 전날 밤 역시 캠핑을 했지만 국립공원을 벗어난 곳의 시설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도심 인근에서 야영을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다. 반면 야생 동물이 우글거리는 세렝게티에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밤에 사자나 물소, 하이어나 등이 출현할 수 있으니 가급적 텐트에서 나오지 말고 화장실이 급하면 텐트 주변에서 해결하라는 가이드의 말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삶은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 법. 역시나 소변이 마려워 한밤중에 깨어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헤드랜턴을 두르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동물들의 반짝이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우우우’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로 달려가 불일을 보고 텐트로 돌아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바라봤다.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별자리마저 눈에 들어왔다.

1 멧돼지 한 마리가 들판을 지나가고 있다. 2 아프리카 우간다의 국조인 관학. 3 사파리 투어 관광객들은 세렝게티 캠핑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로지(lodge)라 불리는 숙소에 머물 수 있다. 4 길을 건너는 코끼리 떼 앞으로 사파리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5 사자 가족이 사냥한 물소로 배를 채우고 있다. 6 200만 년 전 화산 작용으로 생긴 응고롱고로에는 수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다.



‘빅 파이브’(Big Five)의 완성 응고롱고로

다음날 새벽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렝게티의 여정을 시작했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이 많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사파리를 시작하면 더 많은 동물을 볼 수 있다. 특히, ‘빅 파이브’ 동물 중 하나이면서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자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거나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려면 사람도 아침 일찍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빅 파이브는 가장 위험하고 사냥하기 어려운 사자, 코끼리, 물소, 표범, 코뿔소를 일컫는다. 동시에 사파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다행히 졸린 눈을 비벼가며 하루를 시작한 보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나무 그늘 아래서 늘어지게 쉬고 있는 사자 가족을 마주쳤다. 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파리 차량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녀석들은 자다 깨다를 반복하더니 우리 일행이 탄 차량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호기심이 난 듯 차 주변을 맴돌더니 반대편 풀숲으로 건너가 다시 낮잠을 청했다. 사자를 시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을 하루종일 달려 한가로이 풀을 뜯는 물소 떼, 나무 위에서 쉬는 표범을 볼 수 있었다. 빅 파이브 관찰은 마지막 날 응고롱고로 분화구에서 완성할 수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 응고롱고로는



200만 년 전만 해도 칼리만자로보다 높고 큰 산이었으나 화산 작용으로 무너져 내려 평원이 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오늘날에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터전이 되었다. 전날 보지 못한 코뿔소도 이곳에서 나타났다. 응고롱고로는 우리에게 멋진 피날레도 선사했다. 한창 식사를 즐기는 사자 가족을 마주친 것이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바로 옆에서 암컷 두 마리와 새끼 사자 다섯 마리가 방금 사냥한 커다란 물소 한 마리를 뜯어대고 있었다. 물소의 배에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장기는 모두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사자 녀석들은 살은 물론 내장도 맛나게 뜯어 먹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저 놀라우면서도 배속이 흰히 드러난 물소와 입주변이 붉게 물든 사자의 모습이 끔찍하기도 했다. 한참을 지켜보는데 암컷 한 마리와 새끼 사자 세 마리는 포만감을 느꼈는지 옆으로 비켜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암컷은 새끼 사자들을 사랑스럽게 핥아줬다.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하는 게 일생일대의 꿈이었다는 브라질 여성 마리아나는 무척 만족했다. “사자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를 온전히 경험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

